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兼 崔 主 鎬
編輯人 崔 瑞 泳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號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 話 : 702-2233~5, 717-8536~7.
F A X : 703-0755.

銀行지 로 番號 : 7500875
對 替 口 座 : 010017-31-0621565

登山大會 이달 18일 樹木園서 개최

— 아침 9時 冠岳캠퍼스앞 出發, 계곡따라 6km 山行 —



가을 滿喫하는 祝祭마당... 每年 「同窓의 날」을 紀念하여 거행되는 親睦登山大會가 오는 18일 열린다. 3천여 동문 및 동문가족이 참가하는 이날의 행사는 온몸 祝祭의 무드에 老若 동문이 함께 어울려 興겨운 하루를 보내게 된다. 올 해에도 많은 동문들이 參加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사진> 지난해 樹木園廣場에 參集했던 동문 및 가족들

冠岳春秋

오는 10월 15일 우리의母校는 第 46회 開校記念日을 맞이한다. 記念日이란 無意味한 時間에 人間的인 意味를 賦與함을 뜻한다. 個人이나 團體는 지난날의 어떤 事件을 기리기 위하여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날을 다스날과 구별해서 특별한 날로 認定한다. 家族에 있어서도 제삿날이 특별한 뜻을 갖고 있으며, 國家社會에 있어서도 과거의 특별한 慶事를 기리기 위해서 國慶日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有給休暇를 주기도 한다. 이런일이 모두가 가족이나 국가에 대한 愛國心이나 忠誠心을 다지기 위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記念日이 이렇듯 특별한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母校의 開校記念日을 云謂할 때, 새로운 感懷를 느낄 同門이 과연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의 開校記念日은 우리의 무관심속에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이 사실이었다. 母校에서는 그날을 休日로 定했을 뿐이며, 별다른 행사도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母校의 記念行事가 그렇게 허전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별히 冠岳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單科大學만이 존재했을 뿐 名實相符한 綜合大學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다. 또한 冠岳으로 이전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過去의 타성으로 인해서 綜合大學意識은 형성되지 않았다. 總同窓會가 결성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도 대부분의 同門에게는 參與의 機會가 없었다.

이런 속에서 同窓會館의 建立과 開校記念登山大會는 同窓會活性化를 위해 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보겠다. 同窓會館의 건립이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터임으로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登山大會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그것은 78년 10

開校記念과 登山大會

월 22일에 처음 시작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4년 만인 82년에 다시 부활되어 그 후 매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어 올 해로 12회째를 맞게 된다. 참가인원의 수를 보면, 78년에는 고작 2백여명이었던 것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작년에는 3천여명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參加延人員은 2만 5천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登山大會에 한번 참가해 본 同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없이 계속 참가하고 있다. 어느 해인가에는 雨天을 무릅쓰고大會를 치른 적이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同門들은 喜樂樂 同參하여, 모이면 두고두고 그때의 이야기의 꽃을 피우기도 했다.

登山이라고는 하지만 언덕길을 거닐 뿐이다. 거리라야 고작 6km 미만이다. 그것도 母校의 뒷산이다. 그러나 그곳은 서울에서도屈指의 慰樂地이다. 그곳은 母校의 樹木園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라 各種 樹木이 울창하고, 一般人은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다. 근년에 들어서면서 참가자가 다 양해했다. 이 대회에 참가하려고 먼 지방에서 해마다 찾아오는 同門이 있는가 하면, 海外에서도 일부러 패를 맞추어 귀국하여 참가하는 분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家族同參者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있어 同參의 기회는 여러 가지의 좋은 뜻을 안겨줄법도 하다. 主權者側은 물론 家族同參을 환영한다.

母校에서는 開校 50주년을 記念하기 위해서 다양한 記念行事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同窓會도 거기 에 걸맞는 계획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10여년 계속된 이 登山大會를 더욱 알차게 치르는 것이 急先務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同窓會는 同門들의 폭넓은 同參을 誘導할만한 행사를 장만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登山大會와 같은 好材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기를산이 20만의 同門은 한데 뭉칠 수도 있을 것이다. 금년 登山大會에 많은 同門이 家族同參으로 참가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 바란다.

常任理事會 개최, 현안문제 논의

山行코스 확정 : 農大수목원 집결

부했다. 이어 모교 金孝章
탈수있도록 해달란고 당
심에서 鄭宗澤상임부회
시의 성인병과 식생
관한 특강이 있었다.

同窓會 임원명부 發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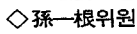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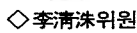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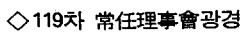
14代 理事 3천명 수록

體裁 혁신, 내용 다채로와

동창회보 編輯委員보강

현직言論人영입, 質的향상 도모

지난 6월말 동창회 제
118차 상임이사회에서
입법·사법·행정부를 비롯
한 각계의 유력동무들을 제
14대理事로 선임함에 따라



海外동문도
1百億「조성」에 앞장

뱅크버支部 과학진흥연구基金 出捐

가쪽들로 구성된 동문가쪽의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합찬다를 발췌키로하고 이 올이고 있다고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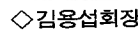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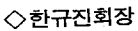
워싱턴·멜번支部

새 執行部구성

藥大學同窓會 회장 韓
영은는 지난 9월 8일 오
卒), 공남식(60卒), 조남춘
(62卒), 안길해(62卒), 김선

藥大 부회장단 새로 선임

기준으로 작성된 주소와



美영수선 D.C.지부는 최근 매릴랜드의 캐더파크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俞黨(66년 丁大卒)동맹을 새로 장으로 선출했다. 현재 동문 5백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支部는 해마다

시·화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서회장단선임과 동창의날
행사 개최에 따른 사할을
논의했다.

〈신임부회장단〉
(67卒) 양홍(59
卒), 이길우(68卒), 한
윤중(64卒), 허길주(68卒)
이준(66卒), 박만기(68卒)
한진 이남 회의는 동창
의 날 행사를 오는 10월 11
일 모교 노천극장에서 개
최하기로 합의했다.

임이 사들인 실체적으로도 동
참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령동맹이라는 점에서 親
近感을 갖게 할뿐더러 앞
으로의 동창회 활성화에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工大발전기금」6천8백만원 쾌척

공대15회同期會 「공대學術賞」 「기술상」 제정 教授에게 시상

지난 5월초 工大15회同期會 61년卒業會長 南正鉉(南正鉉) 大宇엔지니어링社長 1백여명은 졸업31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행사를 모교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15회동기회는 기금으로 마련했던 6천8백만원의 工大발전기금을 李基俊(李基俊) 학장에 써달라고 李基俊(李基俊) 학장에 건넸다.

이들은 지난해 모교졸업 30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도 공대정년퇴임교수실에 사무집기 구입비로 1천8백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50년대말 입학한 이들은 61년 61년에 모교를 졸업한 이래 과학기술의 나후성을 접감하면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동문들이다. 15회

동기회는 졸업당시 10개학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번엔 과별로 1백만원씩 모금하고 나머지 5천8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15회동기회는 기금으로 마련했던 6천8백만원의 工大발전기금을 李基俊(李基俊) 학장에 써달라고 李基俊(李基俊) 학장에 건넸다.

이날 행사에서 15회동기회는 기금으로 마련했던 6천8백만원의 工大발전기금을 李基俊(李基俊) 학장에 써달라고 李基俊(李基俊) 학장에 건넸다.

특수대학원 定總개최

行大院 새회장에 姜敏求등문

李희장은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 현실속에서 우리 동문들은 남다른 각오로써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결과보고에 결산안심회를 마친 이날 모임에서는 영구이사가 된 백대기, 김영길등문과 박사 학위취득 등문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대

이날 결과보고에 결산안심회를 마친 이날 모임에서는 영구이사가 된 백대기, 김영길등문과 박사 학위취득 등문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대



◇ 商大 16회 동창회는 졸업3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홈·커밍데이」행사 盛了

恩師초청, 3백여명 한자리에

商科大學 16회동창회(58年入學 회장 李正鉉)는 지난 9월19일 1시부터 모교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졸업30주년기념으로 HOMECOMING FEESTIVAL을 개최했다.

총회원 3백2명중 절반이 참가 부부동반으로 3백여명이 운집, 대선화를 이룬 이날 행사는 李正鉉(李正鉉) 회장과 李正鉉(李正鉉) 회장이 주관했다. 李正鉉(李正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6회동창회가 각계각층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올 學術院賞 수상자

全員이 서울大人

올해 학술원賞의 受賞者가 全員 서울大人으로 결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학술원예과 따르면 9월17일 92년도(37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자로 沈貞燮(48년 工大卒)·모교명예교수·朱忠燮(54년 文理大卒)

새얼굴

지난달 行政大學院동창회 임시총회에서 신입회장으로 선출된 姜敏求(62年卒)회장은 「동창회장직을 인생의 마지막 할



일로 알고 동창회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우선 첫사업으로 초대 행정대학원장부터 지금까지의 원장들을 초청, 33년 行大院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강연회 개최등을 통해 좀 더 많

同窓會발전의 밑거름될터

은 「열굴악하기」의 기회를 가질것이라고 또한 재정확충에도 주력할 계획인데 그자신 이미 1천만원 기금출연을 약속하기도 했다.

26년 서울生으로 내무부, 교통부, 外資廳등 공직을 거쳐 62년부터 중앙물산기업, 한국스레트공업, 한국유니백, 한국건설 사장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유성컨트리클럽과 호텔의 代表를 겸하고 있다. 또 한국행정학회 이사

行政大學院

行政大學院同窓會는 지난 9월16일 오후 6시30분 동창회관 冠岳홀에서 吳錫泓(吳錫泓) 원장을 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俞尙根(俞尙根) 회장이 지난 7월 타계한에 따라 이사회에서 신입회장으로 추대했던 姜敏求(姜敏求)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연세대학교수·池堤根(64년 大學院卒)·모교醫大교수(동 3명)를 선정,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沈교수는 「4·관등성 에폭시수지의 경화속도와

그물섬상상에 관한 연구」, 朱교수는 「인삼사포닌이 저밀도 지단백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池교수는 「사람 태아의 형태발달에 관한 연구」로 기초및 응용과학발전의기

여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휘장 및 1천만원씩의 부상이 수여됐다.

時論

중립정부의 출현을 보면서

——李清洙(KBS해설위원·本報편집위원)

相反되는 두가지 가능성에 부쳐

盧泰愚대통령이 지난 9월18일
中立선거관리 內閣구성에 관한金
泳三 民主黨총재의 건의를 수용하
면서 민주당 黨綱까지 떠나기로 결
단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중립정부

까지는 중립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앞서 또는 동시에 대통령도
당적을 떠나 중립을 표명함으로써
중립정부가 서게 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중립정부는 우리 憲政史에
도 처음 있는 일일뿐 아니라 동서
역사를 통해서도 선행가 없는 일
이다.
선거관리 내각의 구성은 연립내
각이 무너졌거나 政變이 일어났
다.



◇중립정부라는 역사상 초유의 정부형태를 어떻게 정착 시킬것인가 하는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世界憲政사상 초유의 형태

과도정부·學國內閣과 달리
「힘의」진공상태 초래 우려

가서계됐다.
內閣이 중립인 것은 물론 최고통
치권자인 大統領까지 중립으로 되
는 것은 중립내각의 차원을 넘어서
중립정부의 형태를 갖추게 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盧대통령의 결단은 지난
28일의 3黨 대표회담을 거쳐 올라
온 盧의결과를 토대로 대통령과 3
당 대표의 4 측회담을 더 거치면
대통령특정인으로 한 10월 초순

을경우에 있어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 내각은 내각책임제 나
에서 가끔 있고 정면 또는 憲政의
것을 경유한 지난 60년 4.19 이후
李承晩대통령의 下野와 함께 구성
된 許政 과도정부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은 재야에서 대
통령이 임명하는 데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한 선행은 없고, 大統領의 黨
籍이탈을 통한 중립정부의 선행은
더욱이 없다.
學國內閣의 경우는 내각제 아래
서 정당이냐 정치적 정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인 정당들이 합여

다.
중립정부의 출범은 우선 지방자
치 단체장선거 실시 시기 문제로
각정당들이 극한경쟁으로 대립할 이
유가 없게 해주고 國會를 정상화할
명분이 되고도 남게 해주기 때문이
다. 특히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사상 초유의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정권의 정통
성 시비로 지새우다 싶이 해온 우
리나라의 헌정사를 바로 잡고 명실
상부한 민주정치 문화를 창출정착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중립정부의 출범이라는
대통령의 결단이 어느 한쪽의 「처
기」에 대한 「되찾기」의 결과인가
대통령의 임기후를 고려한 작품인가
위기탈출을 위한 누구와의 합
작품인가, 공명정대한 선거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政局안정과 公明선거 구현에 모두의 힘 모아

특히 지금과 같은 與野관계가 없
어지고 각정당이 원내 제1당 제
2당 제3당의 위치로 바뀌게 되
기 때문에 중립정부와의 관계도 재
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라
서 어느 정당도 官權이나 金權의
지원과 같은 과거의 與黨 프리미엄
없이 또 반대만 해도 통하던 野黨
프리미엄 없이 깨끗하고 정정당파
한 선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만 되면 정부의 정통성 시
비로 빚어지는 과거에 얽매이는 정
치에서 내일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
치가 우리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
나 중립내각 또는 중립정부의 또 하
나의 가능성은 첫번째 가능성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임기를 다스릴 앞둔 大統領
의 중립정부결단이 잘못 풀려나갈
경우에는 책임정치를 포기하고 힘
의 진공상태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립정부는 모든 정당으로부터 공
격의 대상이 되고 정치는 표류하고
견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도 있다. 특히 중립 선거관리 내각
이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힘을 제대
로 발휘하지 못해 선거과정을 방치
하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더욱 그
렇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런 상황
에서 정치권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어떤 변동을 추구하는 움직임
이 어떤가에서 나을 경우 중립정부
결단의 본질적과는 다른 결과가 나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
통령의 중립정부결단이 두번째 가
능성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첫번째
가능성대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
다. 그 마지막 열쇠는 우리 국민의
취고 있고 이제 그 열쇠를 우리 국
민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冠岳홀 이용案内

同門 결혼식장 개방
각종 부대시설 完備

同窓會館 5층에 마련된 「冠岳홀」은 同門
또는 同門자녀들의 結婚式을 위해 항상 열
려있습니다. 總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곳에서 결혼하는 同門들을 위해 本會에서
는 폐백실, 드레스실, 신부대기실, 피로연장
등 일체의 시설과 사진·비디오 촬영시설을
갖추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
습니다.

특히 일반예식장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
용으로 한적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冠岳
홀」에서 동문들만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
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702~2233

※平日 이용시 式場費 할인혜택

서울대학교同窓會

스승과弟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스승의 영향은 절대적일 수 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란 스승의弟子가 輩出되게 마련이다. 한平生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後學의 길을 열심히 닦아온 스승이 있는가 하면 우연한 기회에 배우고자 하여 人生의 길을 다져놓은 스승도 보게 된다. 스승과 後學이 오해를 살아가는 學問의 태도와 삶의 智慧를 조망해 보려는 뜻으로 이欄을 새로 마련한다.

▲제자: 먼저 최근 「仁村賞」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평생의 학문활동을 통해 哲學의 현실화와 대중화에 기여하신 것이 수상이유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요즘 하시는 일을 듣고 싶습니다.

▲스승: 내가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수상을 하고보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요즘 하고 있는 일이라면 철학문화연구소라는 작은 연구소인데 주로 하는 일이 「哲學과現實」이란季刊誌를 만드는 일입니다. 김선생도 아시겠지만 편집의도는 일반인들도 철학을 나누어 갖자는 거지요. 요는 先哲들의 遺著를 가지고 인용하기 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당면 문제들에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집지를 내는 한편 공개강좌도 하는 것이 요즘 하는 일입니다.

▲제자: 철학이 일반인에게도 접근가능한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반세기 동안 이윤선생님의 일관된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사회에서 철학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승: 무엇보다도 우리

哲學은 價值觀형성의 지름길

〈對談者〉

- 스승: 金泰吉 (47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
- 제자: 金南斗 (70년 文理大卒·모교교수)
- 장소: 哲學文化研究所



◇金南斗



◇金泰吉

「일반인도 共有하는 哲學」 주창 「難局극복하는 슬기 발휘할 때」

문예학회의 의식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철학이

는 사람들이 이론적인 정리만 해준다 하더라도

▲스승: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할 공論이 형성돼있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철학을 어떻게 보는 주체적인 사상이 필요하니까 이의 형성을 위해서는 철학자들의 입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자: 선생님의 입장이 된 생각이 선생님께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예로 弊黨의 심리가 팽배하고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환경파괴도 불사하는 것이요. 이러한 혼란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 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돼 가치관 문제를 가지고 오래 씨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때

이를 토대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과제는 많아요. 남아있는 것이요. 90년도에 펴낸 「변혁의 사회철학」에서 이러한 생각의 일단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사회가 소수의 극대화와 다수의 극대화를 면치 못하다보니 불기피

아요. 베스트셀러는 많지만 학계에서 좋은책으로 알려진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뼈대가 있는 책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가며 독서하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자라지 못하듯 해요. 내년에 「책의 해」로 정해졌는데, 어떤 문들이 크게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엄청난 교수가 쓴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읽었는데, 철학에 접근하는 안색으로 좋은듯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내고있는 「철학과 현실」도 도전을 줄 수 있을것입니다. ▲제자: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떠나신지 7년째 되는데, 재직중이나 밖에서 보신母校에 대한 생각을 종종들게 해주십시오. ▲스승: 우리나라는 동

서요. 내가 서울대학교에 몸담고 있던 시절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고뇌하던 시기였고, 따라서 교수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요. 초기에는 학생과 교수가 같은 노선상에서 변민했던 것 같아요. 초기라는 것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터 학생들은 더욱 급진적인 개혁을 원했고, 교수들은 점진적인 개혁을 원하면서 상호 견제가 대립되게 됐는데, 이것이 더욱 큰 고민이었어요. 불행히도 내가 만년에 필연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東歐가 불락한 지금도 殘熱은 남아 있는듯 합니다. 앞으로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우리는 어느 방향」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다시 접근할

필요한 이상으로 치열한 사회경쟁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현물거래를 하고서 서로를 이기주의적인 생활태도로 돌아가다보니 공동체의식이 흔들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심화되어서로 자신의 뜻대로 할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요. ▲제자: 선생님께서 철학적인 글 이외에 수필을 통해서도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고 싶습니다. ▲스승: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철학문화운동, 또는 철학의 대중화운동이 한편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독서수준과도 무관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승: 요즘 우리나라에도 좋은 책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읽히고 있는 좋은 책은 어떤 것 같

문제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좀 특별한 듯해요. 여기에는 모교에 대한 애정이 약하다는 것과 개인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는 좋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반면 다른 학교에 대한 배타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면에서는 좋게 볼수 있는 점도 있어요. 모범적인 동창회라면 동문회에서 정도 있네요. 가운데 대민중과 국가를 생각하고 나아가 세계와 인류를 생각하는 열린마음을 지향하는 조직이 돼야 하겠지요. 이런저런 시의식개혁 문제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조리 서울대학교동창회는 파벌적인 색채가 전혀 없는 열린 동창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아직도 완성하게 못하고 계신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스승: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신차와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해요. 몸 움직이는 것으로는 테니스를 하고 있어요. 정신차로는 육상이 없는 마름이 가장 좋은데 되도록 육상을 안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육상하고의 육은 다릅니다. 결국의 육은 갖되, 육신은 안가지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의 첩경이라 여겨집니다. ▲제자: 혼란한 사회에 어른이 드물다고들 하는데 모쪼록 오래 건강하셔서 젊은사람들의 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승: 젊은세대와 젊은세대가 단절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사회의 발전은 일종의 계주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반기가 잘될때는 사회의 앞날은 밝아지겠지요. ▲제자: 오랜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金庚勳기자〉

지난 8월 31일 母校문화관 소극장에서 열두분의 榮譽로운 退任式이 있었다. 半平生을 母校강단에서 講義해오신 이들 교수들에게 尊敬과 敬賀의 말씀을 드린다. 이에 본보는 떠남의 아쉬움을 달래는 뜻에서 "몇마디의 말씀"을 받아 이欄에 싣는다.

정년퇴임教授와 한마디...



李 日 海 교수
(自然大·수학)



李 敏 鎬 교수
(人文大·서양사학)



韓 釜 淑 교수
(人文大·철학)



姜 斗 植 교수
(人文大·독문학)

位相數學·解析學에 업적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재직기간중의 가장 큰 보람이요, 재산』이라는 李教授는 퇴임후에도 후배나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다고 스스로를 달라고 있다. 69년 지금 폐지된 교양과정부의 부임후 75년부터 자연과학대학 수학과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논문과 저술활동을 통해 위상수학과 해석학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다. 70년 대한수학회 초기단계에 있을 때 다년간 임무를 관장했던 그는 공로자이기도. 퇴임후에도 강의와 연구, 저술활동을 통해 계속 '학자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歷史理論분야의 개척자

학문에 몰입은 자신의 평생생애를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자본주의적 세태에 자신이 위치하지 않는 것'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온 세월로 회고하는 李教授는 또한 '지금껏 역사를 지나치게 개념적으로 접근, 실제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들의 아픔은 흘러버린 것이 있다'며 후학들에게는 자신이 느끼는 이러한 아쉬움을 극복,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역사를 보기를 당부한다. 66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주로 독립근대사와 역사이론분야에 주력,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으며 서양사학회장을 역임했다.

한국 現象學界의 泰斗

49년 모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70년 교양과정부 부교수를 시작으로 졸업생 모교에 재직해온 韓教授는 한국현상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현상학을 현상학의 소개와 발전에 바친 한국현상학계의 泰斗. '마음이 그만들 때가 오진 오겠지' 했는데, 인터뷰다. 고별강연이다. 의뢰를 받고보니 비로소 퇴임이 실감난다. 韓教授는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만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마저 안일해지는 것 같다'는 우려를 덧붙인다. 저서로는 '現代的 哲學', '現象學의 이해' 등이 있다.

獨文學 바로 이끈 33년

『33년간 몸담았던 서울대(學年이라는 법)에 의해 떠나게 되니 고난의 세월에서 벗어났다는 생각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이제 불이 올 것 같은 희망찬 시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처지가 어울려 그야말로 시원섭섭하다』는 姜教授는 51년 모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62년부터 모교 장단에 서은 이래 문리대 문과부장, 인문대학장을 역임했다. 姜教授는 '저의 일생을 서울대 물안에서 생활하다 이제 퇴직을 하고보니 새삼 통창의식이 되살아나 앞으로 회원의 소임을 소중히 해야겠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任 尙 鎭 교수
(工大·조선해양공학)



池 哲 根 교수
(工大·전기공학)



李 惠 秀 교수
(家政大·식품영양학)



張 世 惠 교수
(自然大·화학)

造船공학 발전 이끌어

52년 공대를 졸업하고 59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초창기 조선공학의 학문적 기초를 세우며 조선공학 발전에 헌신해왔다. 특히 선체구조역학분야에 주력해온 任教授는 이분야에 많은 논문과 저서를 썼는데 재직시 활동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기본조선학에 관한 역사를 쓴 것'이라고. 모든 기술의 발전에는 반드시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펴는 李教授는 일본에 이어 만년2위인 우리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나 기업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요망한다.

照明·設計분야에 공헌

일생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신념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池教授는 자신의 세대를 '목숨을 걸고 공부했던 세대'로 표현하며 요즘 학생들의 학문하는 태도를 걱정한다. 때문에 池教授는 후배교수들에게도 학생을 너무 방임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45년 학생으로서 서울대에 몸담은 이후 지금까지 오직 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해온 池教授는 공대도서관, 교무과장 등을 역임하며 특히 조명공학과 전기설비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겨 이분야에 대한 13권의 저서가 자랑스럽다.

家政大學 설립에 앞장

『선배교수의 퇴임식때면 후배로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말할만큼 재직중 학생들에게 자상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李教授는 49년 師大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美류이재나주립대 대학원을 거쳐 62년부터 모교에 봉직해왔다. 69년도 家政大學 설립을 주도한 공로로 학장을 역임하는 등 근 30년간 행정직을 맡아 일하기도 했는데, 그때문에 보다는 많은 연구를 못하듯이 아쉬움과도 말한다. 퇴임후에는 그간 신경쓰지 못했던 생활주변을 둘러보고 싶다는 李教授는 한국조리과학회 회장과 교문을 역임했다.

有機化學분야 선구자

46년 국립서울대학교 제1회로 입학, 졸업후 美 하버 루이스빌대에서 理學박사학위를 받은 張教授는 우리나라 화학계의 1세대로서 40여년간 모교에서 유기화학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온 유기화학분야의 선구자. 현재 화학과에 재직중인 모교 교수가 그의 문하를 거쳤다. 『모교가 국제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려면 국가·동문들의 재정적 후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교수·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張教授는 그간 자연대학장, 同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통솔능 이후의 자연대를 일구어놓았다.



盧 隆 熙 교수
(環境大學院·환경계획학)



李 惟 信 교수
(醫大·의학)



李 貞 姬 교수
(音大·성악)



金 允 成 교수
(獸醫大·수의학)

都市·지역계획科 창설

『재임중 新學問의 도입에 치중, 오히려 결실이 없었던 '느낌'』이라는 盧教授는 그러기에 요즘 집필중인 '지방자치대상전'이 더욱 소중하다고. 52년 법대졸업후 법학을 강의하기 위해 모교강단에 있던 盧教授는 행정대학원이 개원한 59년 조교수로 임용되면서 이후 행정학과 도시계획학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이들 학문을 처음 소개하고 일깨워낸 선각자. 국토개발연구원 초대원장으로 오느라 바빠 이무고 초대환경대학원장을 거치며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창설을 주도하기도.

피부과학계의 산證人

49년 모교 醫大 졸업 후 62년부터 30년간을 모교에 봉직해온 李教授는 6.25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 피부과학의 재건을 주도해온 피부과학계의 산證人. 재직기간중 제자들이 잘되어서 찾아왔을 때와 완쾌된 환자들의 밝은 모습을 대했을 때가 가장 보람이었던 李教授는 우수한 제자들을 많이 남겼기에 퇴임이 그다지 아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후배교수들에게는 '仁和'를 학생들에게는 학문탐구에 대한 적극성을 당부하기를 잊지 않는 李教授는 내년부터는 단국대에 출강, 앞으로는 계속 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쓸 계획.

理論·實技 철저히 구현

李教授는 52년 모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61년 모교에 부임한 이후 30여년간을 모교의 한계해왔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이라는 李教授는 자타가 공인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간 76회의 음악회에 독창자로 출연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철저히 구현해온 교육자로서도 잘 알려진 李教授의 '성악도를 위한 영어리슨'은 이방면에 회자되는 저술이다. 평소 화초와 애완동물 보기가 취미라는 李教授는 평소 학생들에게 '엄마같은 교수'로 통했다고.

獸醫생물학 기초 다져

51년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美 미네소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마친 金教授는 62년도부터 모교 강단에 서으면서 수의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다는 출가분한 심정도 있지만, 동업생명과 학계 동료의 전문인이 태부족한 현실과 미흡한 연구역건이 안타깝다』고 퇴임의 井을 대신한다. 퇴임후에는 제약회사의 기술고문으로 재직하며 연구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는 金教授는 수의학회 학술위원으로 수의생물학 분야에 다수의 논문을 남겨 학계에 기여해왔다.

신기술공
사부장
本會理事
會장에 취임



▲金正浩 (55년) 文
理大學 學
士 本會理事

▲盧載源 (55년) 法
大 9월 7
일 駐 韓
公使 代表
표부대표
에서 초대 駐中國대사 임
명됨



▲李相赫 (58년) 法
大 卒 學
士 本會理事

金 이사장에서 은행감독원장
에 임명됨



▲李相赫 (58년) 法
大 卒 學
士 本會理事

▲趙炳義 (60년) 工
大 卒 學
士 本會理事



▲鄭世煜 (60년) 法
大 卒 學
士 本會理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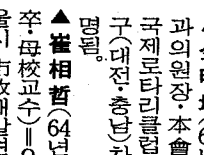
▲金明坤 (63년) 醫大 卒 學
士 本會理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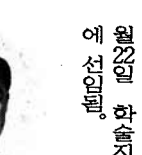
▲許永燮 (64년) 工
大 卒 學
士 本會理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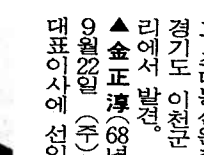
▲金連洙 (67년) 行
政大學院 卒 學
士 本會理事



▲李孝益 (68년) 經
營大學院 卒 學
士 本會理事



▲金連洙 (67년) 行
政大學院 卒 學
士 本會理事



▲李孝益 (68년) 經
營大學院 卒 學
士 本會理事

申英秀 韓國의료관리연구회장



한 현실을 바로잡는 것
이 연구원들의 사명감
에서 할 일이라고 설명
한다.
80년 모교醫大부설 병
원연구소장으로 재직할
기간 8월 27일 은평



醫保制度의 改善이 設립 목적

患者·병원간 불만 조정역할

구 노년층 국민보건연구
회 개원식을 가진 한국
의료관리연구회의 申英
秀(89년 醫大卒) 초대 원
장은 현행 의료보험의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자
신들의 회생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국민은 국민들대로
매달 보험료를 꼬박 꼬
박 내면서도 서비스는
형편없다고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고 바로 이런

臨床醫 길 버리고 의료제도·병원경영연구 專念

료보험진료비 관리의 적
정화 ▲적정의료수가의
산정 ▲국민의료비규모
의 정비조사 ▲적정의료
보장 등 7대 중점사업과
제를 선정,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
료기관종사자의 교육훈
련과 병원경영정보제공
사업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申은 현재
이러한 사업을 통해 현재
1조원정도의 국민의료
보조비 중 5백억원 정도
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醫師도 관리자의 자질
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
념으로 모교의 의료관
리학교설의 개설에도 깊
이 관여했던 申은 본은
자신도 의료인의 입장이
지만 비임상적인 의료보
험비 청구로 부담의식을
취하는 의사가 있다면
서슴없이 칼을 대겠다며
오직 사회복지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만 일하겠
다고 신념을 밝힌다.
부인 천남주女士와의
사이엔 1男2女를 두고
있는데 특히 장남 기철
군이 모교의대에 들어가
공부를 잘하고 있어 무
척 자랑스럽다고.
(洪慶華 기자)

- *백 민준(91년 農大卒) 10월 11일 11시
- *최선락군(86년 社會大卒) 10월 11일 12시 30분
- *박종용군(87년 工大卒) 10월 11일 2시
- *정현숙양(87년 工大卒) 김예주양(87년 工大卒) 10월 11일 3시 30분
- *김재석군(84년 音大卒) 임재경양(84년 音大卒) 10월 16일 2시
- *김 강준(82년 法大卒) 박경운양(82년 法大卒) 10월 17일 11시
- *기우석군(89년 經營大卒) 차명숙양(89년 經營大卒) 10월 17일 12시 30분
- *박정현군(90년 工大卒) 한정림양(90년 工大卒) 10월 17일 2시
- *박주형군(88년 保健大學院卒) 김연미양(88년 保健大學院卒) 10월 17일 3시 30분
- *황세영군(89년 醫大卒) 人文大卒 10월 18일 11시
- *정진태군(90년 工大卒) 최윤정양(90년 工大卒) 10월 18일 12시 30분
- *김명준군(88년 人文大卒) 이선숙양(88년 人文大卒) 10월 18일 2시
- *김승수군(84년 師大卒) 유해미양(84년 師大卒) 10월 18일 3시 30분
- *정갑현군(89년 師大卒) 최현양(89년 師大卒) 10월 20일 3시 30분
- *김한상군(83년 工大卒) 清水里香양(83년 工大卒) 10월 21일 3시
- *김원배군(91년 社會大卒) 남한선양(91년 社會大卒) 10월 24일 12시 30분
- *이승호군(89년 工大卒) 조선진양(89년 師大卒) 10월 24일 2시
- *노재원군(89년 人文大卒) 김현양(89년 人文大卒) 10월 24일 3시 30분
- *양금식군(90년 工大卒) 이복영양(90년 工大卒) 10월 25일 11시
- *김유정군(86년 法大卒) 최지현양(86년 法大卒) 10월 25일 12시 30분
- *이병철군(90년 自然大卒) 차경애양(90년 自然大卒) 10월 25일 3시 30분
- *이완희군(86년 社會大卒) 조정숙양(86년 社會大卒) 10월 27일 1시 30분
- *김중평군(85년 農大卒) 이성분양(85년 農大卒) 10월 30일 1시
- *이정근군(89년 經營大卒) 정현경양(89년 經營大卒) 10월 31일 12시 30분
- *원동근군(88년 人文大卒) 여애경양(88년 人文大卒) 10월 31일 2시
- *김현구군(87년 社會大卒) 김미영양(87년 社會大卒) 10월 31일 3시 30분



▲閔寬植 (40년) 農
大卒 民主
黨 黨務
本會 理事
9월 22일

22일 통일고려회의 제5대 의장으로 선출됨.

▲咸仁英(48년) 工大卒 美
펜실베이니아주립대 碩座교수
최근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생물연구학회(CIRP)
총회에서 차기회장에 선출
됨.



▲閔東根 (50년) 文
理大卒 中
南대교수
8월 20
일부터 22

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
된 제4차 조선화 국제학술
토론회에 참가, 우리민족의
훌륭한 도덕적성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

▲金貞欽(51년) 文理大卒
고려대교수·本會理事 9월 5일
퇴임을 맞아 9월 5일 同大
인촌기념관에서 고별강연회
를 가짐.



▲白樂皓 (52년) 音
大卒 母校
교수·本會
理事 9월 5
일 同대교수

아노연구회 초대 회장에 선
임된후 런던파아노악제에
참가, 비습게이트음악단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姜信浩 (52년) 醫
大卒 東亞
醫院 院長
會長 9월 5
일 同대교수

근 수석장학회를 문화재단에
로 변경하기가바아 수석문화재
단으로 발족하고 이사장에
취임.



▲金東熙 (53년) 農
大卒 단국
대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부양고양동물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洪承稷(53년) 師大·고려
대교수·本會理事 9월 18일
단국대 아시아사회과학연구
원 이사장에 취임.



▲金永圭 (55년) 農
大卒 前동
理 9월 18일



▲盧寬澤 (55년) 醫
大卒 母校
교수·本會
理事 9월 18
일 同대교수

건기구(WHO) 청각장애에
발생한 전문자문위원으로 위
촉됨.



▲崔廷旭 (56년) 工
大卒 同大
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실베니아주립대에서 同大
고 賞인 Distinguished
Alumnus Award를 수
상한후, 故人이 된 재학시
의 지도교수를 기리기 위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同大
대학원에 진학하는 모교출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키
로 함.

▲李炳漢(56년) 文理大卒
母校교수 9월 1일 中國
重慶에 있는 西南사범대 新
詩研究所의 客座교수로 초빙
됨. 또 9월 15일 上海 華東
사범대학교의 客座교수로 초
빙됨.

▲李御寧 (56년) 文
理大卒 前
문화부장
관·本會理
事 9월 18
일 同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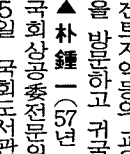


著書「죽소지향성의 일본인」
을 통해 일본문화에 대한 새
로운 이해를 이끌어낸 공로
로 日本문화인포럼이 제정한
「문화디자인상」 수상자로 선
정됨.



▲尹鍾燮 (57년) 文
理大卒 同
대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國文協주최의 제3차 해외문
학신포럼에 참석하고 타슈
켄트지역의 교육·인문기관
을 방문하고 귀국.



▲朴鍾一(57년) 法大卒 前
국회상임위원 9월 18일
5일 同대교수 9월 18일
(차관)에 임명됨.

▲李哲圭(57년) 法大卒 本
會理事 9월 18일 同대교수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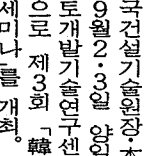


▲金明浩 (57년) 商
大卒 本會
理事 9월 18
일 同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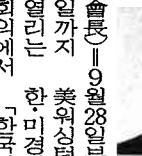
▲黃昌基 (58년) 商
大卒 本會
理事 9월 18
일 同대교수

참석.
장에서 보훈장학금위원회에 임명
됨.



▲李潤植(59년) 工大卒 同
대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국건설계기술원장·本會理事 9월
9월 2·3일 양일간 일본국
토카이기술연구소에서 9월 16
일 同대교수 9월 18일 同대교수
세미나를 개최.



▲金環東 (59년) 文
理大卒 同
대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李炳漢(59년) 文理大卒
前서울형사지방법원부장관
사 9월 18일 서초구 서초동 1
715-3에 변호사 사무실
을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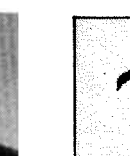


아문제연구소장에 취임.
▲朴椿浩 (59년) 文
理大卒 同
대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洪官義 (59년) 商
大卒 本會
理事 9월 18
일 同대교수

숙 대표이사장에서 동문건
설산업 대표이사장에 선임
됨.



▲金正吉(62년) 音大卒 母
校교수 9월 21
일 同대교수

9월 21일 예술의전당 리사이
틀에서 「러시아 작곡가의
밤」을 주제로 작품발표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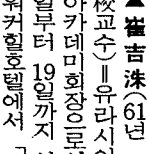


▲梁甲錫(63년) 文理大卒
고려석유화학사장 9월 1
일 고려종합화
학사로



▲洪在馨 (60년) 商
大卒 同大
교수 9월 21
일 同대교수

美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 은행가협회(A P
B C) 정기이사회에서 제 13
대의장에 취임.



▲崔吉洙(61년) 醫大卒 母
校교수 9월 21
일 同대교수

아카데미화장품에서 9월 16
일부터 19일까지 서울세라톤
위키호텔에서 제6차 유
라시아 신경외과아카데미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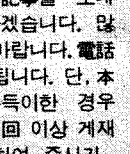


▲安泰燮 (62년) 法
大卒 9월 18
일 同대교수

응모중기금이사장에 임명됨.
▲嚴基炎(62년) 法大卒 9월
9월 5일 신용보증기금 인천
지역본부장에서 이사로 승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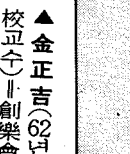


▲安武赫 (62년) 大
學院卒 同
대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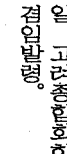
▲權泰煥(65년) 文理大卒
母校지역중합연구소장 9월
9월 4·5일 양일간 母校 문화
관과 호암미술관에서 제1회
지역연구학술발표회를 개최.

▲元佑鉉(65년) 法大卒 同
대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李正國 (66년) 工
大卒 9월 18
일 同대교수

▲李義雄(65년) 齒大卒 同
대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李正國 (66년) 工
大卒 9월 18
일 同대교수



▲鄭然春 (64년) 文
理大卒 同
대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회맹맹회에서 이사로 선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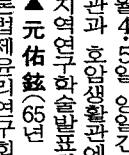
▲金榮秀 (64년) 法
大卒 同大
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문화연구소장으로 9월 25
일 라마다를리피아호텔에서
「조선문화활동의 문제와
발전과제」를 주제로 92문화
정책세미나를 개최.



▲柳東吉 (64년) 商
大卒 同大
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중소기업대학원 원장에 취
임.



▲權泰煥(65년) 文理大卒
母校지역중합연구소장 9월
9월 4·5일 양일간 母校 문화
관과 호암미술관에서 제1회
지역연구학술발표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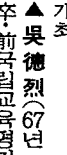
▲元佑鉉(65년) 法大卒 同
대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李正國 (66년) 工
大卒 9월 18
일 同대교수



▲李義雄(65년) 齒大卒 同
대교수 9월 18
일 同대교수

▲李正國 (66년) 工
大卒 9월 18
일 同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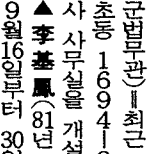


▲李正國 (66년) 工
大卒 9월 18
일 同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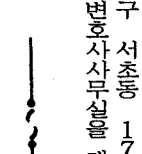
▲李在烈 (74년) 音
大卒 9월 28
일 7시 30분
에

계장학금을 지급.
리사이틀에서 바순독주회
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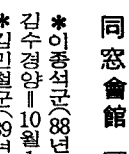
▲朴虎緒(77년) 法大卒 前
군법무관 9월 28
일 1694-34에 변호
사 사무실을 개설.

▲李基鳳(81년) 美大卒 9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랑 사계와 청담동
의 갤러리미전에서 세번째
개인전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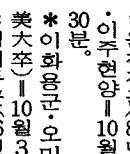


▲高炳錫(82년) 大學院卒
前서울고법판사 9월 28
일 1716-4에 변
호사 사무실을 개설.

▲李基鳳(81년) 美大卒 9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랑 사계와 청담동
의 갤러리미전에서 세번째
개인전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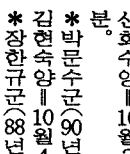


▲李基鳳(81년) 美大卒 9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랑 사계와 청담동
의 갤러리미전에서 세번째
개인전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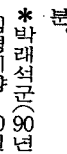
▲李基鳳(81년) 美大卒 9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랑 사계와 청담동
의 갤러리미전에서 세번째
개인전을 가짐.

▲李基鳳(81년) 美大卒 9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랑 사계와 청담동
의 갤러리미전에서 세번째
개인전을 가짐.



▲李基鳳(81년) 美大卒 9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랑 사계와 청담동
의 갤러리미전에서 세번째
개인전을 가짐.

▲李基鳳(81년) 美大卒 9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랑 사계와 청담동
의 갤러리미전에서 세번째
개인전을 가짐.



▲李基鳳(81년) 美大卒 9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랑 사계와 청담동
의 갤러리미전에서 세번째
개인전을 가짐.

揭示板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同窓會館 冠岳廳

「百歲青年」이란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老人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곳이 이른바 三大長壽村이다. 파키스탄의 훈자, 에쿠아도르의 빌카밤바와 구소련의 코카서스이다. 이들 長壽村은 나라와 지역이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에 둘러싸인 盆地로 기후 환경이 매우 쾌적하며 都市와 동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좋은 食水を 가지고 있다는 점. 칼슘·철분 등 각종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마시며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과 肉類를 먹고 있다. 셋째 主食은 대부분 잡곡이며 야채와 과일을 놀랄만큼 많이 먹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식사량이 매우 적으며 醃酵乳를 많이 먹는다. 다섯째 부지런히 일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활동한다. 여섯째 성격이 매우 낙천적이고 친구를 많이 사귄다.

사람의 壽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회·경제·환경도 중요하지만 생태학적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구소련에서 80세 이상의 장수자 1만5천명을 대상으로 평균수명을 좌우하는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장수자의 3분의 2가 시골휴양지나 약수가 있는 곳, 또는 해변에 살고 있었다. 대부분이 해발 5백~1천5백m 되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활동적이며 야원 편이었다. 높은 곳에 살다보니 심장기능이 매우 좋아 백세 노인의 심장기능이 40대처럼 건전하다는 것이다.

勞働이 중요한 장수의 비결이 되고 있다. 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뒷받

침하고 있는 셈이다. 이곳 노인들은 민속춤이나 음악회 등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

코카서스는 뒤에 5천m의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 싸였으며 萬年雪을 이고 있다. 옆에는 黑海를 끼고 있어 북위 42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은 아열대에 속해 연중 푸르름이 계속된다. 北半球의 별천지라 불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들의 식생활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 내가 본 바로는 이들만큼 均衡食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穀類로는 옥수수, 수수, 밀이 있고, 감자도 먹는다. 옥수수와 감자로 만든 부침개를 먹을 때에는 속에 치즈를 넣어 먹는다. 치즈와 발효유를 많이 먹는 것이 특색으로 되어 있다.

웬만한 집에는 감나무와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 석류, 배, 귤 등 여러 종류의 과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많이 먹는다. 식탁에는 야채로 각종 산채, 풋마늘, 당근, 오이, 가지, 셀러리, 토마토, 박하잎 등이 푸짐하게 오른다. 가지와 양파는 날 것으로 먹지 않고 익혀서 먹는다. 날채소는 붉은고추로 만든 다데기를 조미료로 찍어 먹는다. 여기에 호두와 개암 등 堅果類의 섭취량이 많다. 유류로는 닭고기, 쇠고기, 양고기 등을 먹으며 술은 포도주와 차차라는 증류수를 마신다.

이렇듯 그들은 철에 따라 생산되는 식품을 큰 가공없이 먹고 있는 것이다. 「친구를 많이 사귀고, 과식하지 말며 자기 발로 부지런히 걸어라. 性生活은 지나치지 않게 즐겨라」하는 것이 長壽秘訣로 전해지고 있다.



劉太鍾

52년 農大卒
[谷泉健康장수연구소장]

長壽國의 건강비결

여기서 나는 프랑스의 국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파스퇴르같은 학자를 길러내어 보이지 않는 저력을 길러 화학, 문화, 예술인물, 국가의 꽃으로 천추에 빛나게 모셔 받드는 이유를 알지만 같다.

노구의 불평을 무릅쓰고 한달간의 연구시찰은 그 러나 필자의 앞날에 시사하는바 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가 각각 역사와 문화예술의 전통을 보존하고 살려 21세기를 향해 발돋움하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졌다.

名譽教授 칼럼



金俊燮 (前문리대학장)

이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더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유렵여행을 떠났다. 먼저 독일의 베를린과

老軀를 이끌고 떠난 유럽여행

존과 있고 모차르트의 출생지이자 전반기의 활동무대인 지라, 가두에는 바이올린을 치는 모습이 빈번했고, 모차르트가 살던 집은 특별히 볼만했다. 다음 목적지는 영국의 런던과 북쪽에 있는 에딘버러대학이었다. 에딘버러를 찾은 목적은 데이트를 하고 에딘버러대학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이 첫 휴일이 도시관람을 지냈던 곳이었으나, 내가 최근 여행한 '화실션'의 탐

유럽의 전통보존에 감동 프랑스研究院 규모에 國力 실감 21世紀 지향하는 힘의 원천 발견

구가 이대학 기포드강의에서 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런던에서의 불행한 「경제학과 정치」의 런던대학교를 보아도 그 옆에 있는 런던대학교의 캠퍼스를 둘러보고, 할수만 있다면 포

교수로 일생을 보내다 나중에는 노년으로 반신불수가 되고서도 연구를 계속하여 학계를 밝히는 여망과 학계의 공헌을 하였다. 지금이 연구수단 몇몇을 차지하는 큰대지에 세계각국의 학자들이 모여 연구하고 있다. 이어 찾은 화실션의 「프랑스연구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화실션 이외의 과학, 물리학연구원의 화실션 5~6개의 연구원이 모여 프랑스연구원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을 고찰한 후 「자형전」을 그 「자형전」을 연구한 루돌프를 연구시켜 나폴레옹의 군복을 형상화시킨듯 프랑스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고 있었다. 「화실션」이란 말은 실감할 정도의 위용이었다. 세상이 모든 것이 그렇듯 앞면 수문처럼 관상과 알맹이는 의외로 없었던 듯이 보였다. 못보고 못들어 못느끼게 되는 것처럼 파리를 내려면이나 왔으면서도 이곳을 왜 못와봤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다.

年會費 내주신분

理事: 7월 27일 ~ 8월 6일
一般: 7월 10일 ~ 7월 31일

人名 및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이 사

◇ 家政大學

▲李基榮 70 서울대학교수
▲任仁順 62 주부
▲鄭良鎬 63 주부
▲崔海珠 74 한성대학교수

◇ 看護大學

▲金南連 65 주부
▲徐春源 70 모라병원과장
▲俞淑子 63 가톨릭의대학교수

◇ 工科大學

▲姜錫圭 60 동서대총장
▲康守哲 48 대한유화공업고문
▲姜榮國 63 라다이스개발
▲姜晉求 67 삼진전자회사
▲康弘燮 66 대광산업장부
▲郭三澤 65 고려산업개발회사
▲具昌男 64 동양나일론사장
▲權重斗 63 신동아건설사장
▲奇宇奉 63 한국산업비스
▲金 暉 61 주부
▲金寬旭 68 주부
▲金武鉉 65 신아진출도사대표
▲金炳珍 65 대일엔지니어링
▲金炳錫 65 한화화학장부
▲金三坤 65 한국전력기술장부
▲金相演 61 한국에너지협고문
▲金聖中 66 DK테크사장
▲金世根 64 (前)신영계공과장
▲金英男 65 정우식타부사장
▲金仁錫 65 일진출출사무소장
▲金定萬 65 효능개발사장
▲金正雄 67 대우국민차
▲金正中 62 삼미정공부사장
▲金宗根 65 법아건축사대표
▲金駿基 60 보진제(주)회장
▲金昌圭 48 대림공정회장
▲金昌民 65 화동교역부사장
▲金昌洙 63 부한산업사장
▲金兌燮 67 신아조신사장
▲金辨洙 67 신양사부사장
▲金炯吉 62 미한건축대표
▲金炯珠 65 신기출공사회장
▲羅 準 65 롯데제과전부
▲羅鍾澤 67 삼원산업이사장
▲南敬熙 65 을산화학부사장
▲南正鉉 61 대우엔지니어링

▲鄭然世 67 한민회회장
▲鄭然澤 67 명진문화대학장
▲鄭玉恢 69 부국호수장사장
▲曹圭大 69 경인산업사장
▲曹秉柱 68 전도상사장
▲崔正吉 68 경인건설사장
▲崔鍾宇 68 삼원기계사장
▲韓泰熙 66 한국엔지니어링
▲咸景浩 66 (前)한양기계사장
▲咸承浩 67 조흥화학공업사장
▲許 達 61 주부
▲玄喜憲 65 최신출산사장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며,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
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會費구분 -

- 一般會員 1만원
- 理 事 5만원
- 常任理事 10~20만원
- 監 事 30만원
- 副 會 長 50만원
- 會 長 100만원

▲黃大錫 65 삼진출출사무소장
▲黃正樹 65 정우식출출사무소장
▲高興哲 61 신동아그룹실장
▲權大旭 63 한보주택사장
▲金康植 65 동진출출차장
▲金南龍 67 나동우출출사무소장
▲金東基 66 서울대학교수
▲金祥源 66 대법원법관
▲金元世 65 현대대법관
▲金周浩 65 한국사료협회장
▲南宮堅 64 유한화학공업이사
▲文進雄 65 동서식품고문
▲朴景源 65 대진교육청교육감
▲朴容錫 64 백화점주부사장
▲成子慶 67 부산기술협회장
▲宋三石 67 (前)중앙출출차장
▲宋熙奉 61 한국개발연구원장
▲申義淳 66 금산산업이사장
▲梁鍾澤 63 포항사장
▲吳鳳國 65 서울대명예교수

▲申鉉千 65 방목대연구위원
▲姜泰成 64 이화대학교수

▲吳世昇 67 동진연구부
▲李來秀 64 동원출출이사장
▲李炳夏 66 동원출출이사장
▲李澤道 66 동부출출
▲李弼宇 67 서울대학교수
▲全甲德 65 일진출출이사장
▲鄭昌鎬 64 국회의원
▲鄭春熙 65 대전시건설국장
▲陳重熙 65 보한산업부회장
▲崔玄國 65 한국기술개발사장
▲洪範基 65 신성화학사장
▲洪性根 66 동원하스사장
▲洪淳根 61 인삼연구소이사장

▲李順泰 63 (前)백제문화연구원
▲李御寧 65 (前)문화부장관
▲李承潤 61 국회의원
▲李龍兌 67 삼보컴퓨터회장
▲李載燮 66 동양시멘트전부
▲李正煥 65 정보자원개발사장
▲李昌煥 64 신진출출이사장
▲李哲培 62 경기기술연구소장
▲李漢國 65 서울대출출사무소장
▲李漢彬 64 (前)부총리

▲郭元模 66 중앙대학교수
▲金守錫 66 부산대학교수
▲金載廷 66 화가
▲閔庚甲 67 유산화실장
▲徐世鉉 65 서울대학교수
▲孫喜玉 72 단국대교수
▲李烈模 61 신구관대학교수
▲李鍾福 66 (주)포플러자이사장
▲車明喜 66 과동대학교수
▲崔正龍 67 신화예고미술부장

◇ 法科大學

▲姜慶植 61 신한생명보험고문
▲康祐赫 62 국회의원
▲權光重 65 사법연구원교수
▲權秉順 65 서울경인그룹대표
▲琴秉勳 61 변호사
▲金剛榮 65 변호사
▲金慶洙 66 대우조선공업이사장
▲金公植 65 변호사
▲金寶燮 66 변호사
▲金大雄 66 대진출출사무소2과장
▲金錫營 65 대양출출이사장
▲金性洙 65 오양수산회장
▲金聖洙 65 변호사
▲金昇澁 65 산삼투자금융사장
▲金寶東 64 삼미유물사장
▲金洋一 65 변호사
▲金永均 65 변호사
▲金永三 65 변호사
▲金成勳 66 동창회제주지부장
▲金玉照 63 국무총리비서실장
▲金完植 65 변호사
▲金容仁 73 변호사
▲金在久 72 정부부지원
▲金浩浩 65 코이아연구소장
▲金春鳳 63 변호사
▲金泰卿 65 변호사
▲金泰鎬 66 변호사
▲金憲武 63 대구지방법원장
▲金洪憲 71 변호사
▲盧信永 64 전부총리
▲文相翼 64 변호사
▲閔丙國 63 변호사
▲朴忠根 72 변호사
▲朴忠淳 66 변호사
▲朴泰緒 63 제일단소공업회장
▲白南治 68 국회의원
▲邊精一 64 국회의원
▲奉鍾顯 61 장기산업은행장
▲石鍾康 66 변호사
▲鮮于宗源 61 변호사
▲孫京植 61 안국화재보험회장
▲孫一根 64 한국일보이사
▲孫智烈 65 서울고법부장판사
▲宋漢清 66 동원출출사무소이사
▲廉東禧 65 대한전부부장
▲吳成煥 67 변호사
▲吳永洙 65 대한상사사장
▲禹 進 64 고려환경기술사장

▲盧載敏 66 신일출출이사장

▲黃煥鴻 65 (주)진정출출이사
▲黃錦完 65 체육부부장판사
▲洪承九 64 전국부동산협회장
▲黃鍾泰 65 경향신문출출사무소
▲具昌謀 65 정암고교장
▲金寬洙 65 영도고교장
▲金相基 65 문화방송출출부장
▲金鍾植 65 성덕출출고교장
▲金永坤 65 애경화학사장
▲金永泰 65 (주)STM사장
▲金容吉 61 경기대부총장
▲金章華 65 보성고교장
▲金寶均 65 세제일보부장
▲金炫坤 63 현대출출이사장
▲盧載敏 66 신일출출이사장

◇ 師範大學

▲李在雄 65 고려출출사무소
▲李在昌 66 한성출출교수
▲李昌求 70 사법연구원교수
▲李泰熙 64 변호사
▲李漢東 63 국회의원
▲李泓熙 65 동서신문화회장
▲李微永 67 경기화재상사장
▲任洪彬 66 문화상사이사장
▲林采洪 66 변호사
▲張珉澤 65 상원출출연구부이사
▲張富雄 65 동방출출사무소장
▲張在亨 76 변호사
▲全炳宇 65 동서신문화이사장
▲田道學 65 우성로라스학사장
▲丁璋鉉 63 국회의원
▲鄭貴鎬 63 춘천지법법원장
▲鄭大哲 67 국회의원
▲趙錫衡 64 국회의원
▲趙東元 68 해외문화협이사장
▲趙正濟 69 변호사
▲趙顯宇 72 변호사
▲千正培 76 변호사
▲崔允洙 67 현대경제연구원
▲崔秉烈 64 국회의원
▲崔相隣 61 법제처장
▲崔泳龍 68 전국회의원
▲韓基泰 65 중앙기회회장
▲韓萬春 62 변호사
▲韓永錫 61 법제처장
▲許柱旭 61 삼화투자금융사장
▲洪鍾泰 65 산삼출출이사장
▲皇甫慶石 65 전통지신이사장
▲黃秉一 73 변호사

▲文尙綱(55)정남산업회
▲文允吉(60)변호사
▲朴秉熙(56)순천대학교
▲朴勝安(53)경남대학교
▲朴鍾國(71)경희대학교
▲朴鍾澤(49)국세청장
▲朴昌洙(65)과주세무서장
▲朴和緒(44)前(前)신성국교장
▲朴海俊(60)소설가
▲宋石根(71)서울화원
▲安任洙(69)과동대학교
▲安鍾晚(69)한양대학교
▲吳正煥(66)롯데그룹이사
▲柳錫烈(62)안보외교연구원
▲李炯(64)충실대학교
▲李光政(65)경원대학교
▲李光晔(65)명지대학교
▲李基東(64)연세대학교
▲李奉鉉(60)서울시청장
▲李善俊(52)인성기업사업회
▲李元雨(69)국립도서관장
▲李益煥(68)연세대학교
▲李一徹(57)인원대학교
▲李鍾樂(62)교유부연구관
▲李鍾善(64)국민대학교
▲李惠星(62)이화여자대교수
▲李基基(66)KBS경제부장
▲李姬鎬(50)주부
▲林仁秀(58)한림출판사
▲張陽秀(61)현대칼라사
▲田時鎮(60)한국증권금융부장
▲鄭萬永(58)홍대부속여중교장
▲鄭煥謨(70)단국대교수
▲趙利男(65)금영종합재무부장
▲趙鍾守(58)대구세영직물대표
▲智東韶(60)정신여고교장
▲千榮喜(67)제일제당부장
▲崔仙吉(64)노원구청장
▲崔鍾五(66)당일산업대표
▲崔鍾祥(51)이화산업부장
▲崔興敏(53)신구전문대학장
▲韓珍熙(63)남북수산부장
▲洪性翰(55)서인천고교장
▲黃應淵(54)이화여대교수
▲黃迪倫(58)서울대교수

◇商科大學

▲簡榮錫(64)지역개발공사이사
▲康京洙(61)한국화재부사장
▲姜信重(64)신한은행이사
▲萬政雄(72)대림산업이사
▲郭秀一(63)서울대교수
▲權東洙(58)한국주택금융공사
▲權南相(61)대우부동산부장
▲權宰旭(58)선경부동산부장
▲權五均(63)국민대교수
▲權鍾善(68)아쿠르공업부장
▲權泰鳴(64)동아출판(주)부장
▲金朱洙(66)삼성전선부장
▲金重壽(55)진흥기업고문
▲金志貞(67)고려대대표
▲金鍾珠(66)포항특수산업대표
▲金昌達(57)한국기술개발대표
▲金球謙(68)국회의원
▲金春植(69)계동사무소장
▲金泰球(63)대우자동차부장
▲金炫植(65)이출판사부장
▲金洞萬(56)前(前)고교장
▲金炯英(60)경남은행장
▲金弘九(70)동신토건이사
▲羅基成(64)경동산업부장
▲羅公默(61)코오롱고교대표
▲南鍾(76)경기건설그룹이사
▲南大祐(64)신용보증기금부장
▲南相白(59)경수부자강연대표
▲盧載承(61)변호사
▲盧昌憲(60)우부차관
▲孟鍾成(59)신보장업부장
▲文勝永(61)동신토건부장
▲閔庚輝(70)신원구원부장
▲閔丙快(66)조흥증권부장
▲朴建泰(63)삼영증권부장
▲朴景輝(57)우호은행이사
▲朴萬玉(62)조흥은행이사
▲朴炳燾(57)강원산업부장

▲申鍾祐(52)부국증권사장
▲沈鼎求(67)국회의원
▲安承喆(60)국민은행이사
▲安惠珍(57)기업은행부장
▲嚴鎰永(57)동서부회장
▲吳德均(57)중앙대총장
▲吳丙和(64)전원산업부장
▲吳萬鎰(60)우부자산부장
▲吳昭煥(57)한일은행부장
▲吳漢九(67)前(前)국회의원
▲禹贊穆(59)조흥은행이사
▲元漢榮(60)부산상업부장
▲柳明集(59)유신교역(주)사장
▲尹承斗(43)前(前)남일은행고문
▲尹陽鉉(59)(주)교보문고사장
▲李建宰(65)오정아파트(주)사장
▲李貴在(64)신한은행부장
▲李煥成(62)전안대교수
▲李洪鎰(63)국민은행부장
▲李吉雨(53)서울대교수
▲李東基(61)서울시립대교수
▲李滿基(57)한양대교수
▲李炳斗(55)우원전자(주)사장
▲李炳燾(64)경희대(주)사장
▲李錫采(60)경계기획원부장
▲李容徹(60)중외제약(주)전부

◇獸醫科大學

▲金昨燾(70)공약국
▲金台鉉(72)정원중도장대표
▲白文英(66)경지문화사부장
▲梁奇千(63)제주대수의과교수
▲吳永均(57)중앙대수의과교수
▲李角模(63)(주)동방사장
▲李道弼(63)우원전자(주)이사
▲李重熙(63)한국특수사료사장
▲李昌九(64)前(前)바이엘연구소장
▲林永一(64)합동동물병원장

◇醫學科大學

▲姜來烈(62)간암과원장
▲金基永(60)제일병원원장
▲金東根(58)동은정형외과
▲金明浩(68)한양의대신경과
▲金世景(55)한국병원과부장
▲金演基(64)김천기소아과의원
▲金永均(49)단국대의료원장
▲金永洪(55)김영웅의과의원장
▲金鼎榮(63)서울대교수
▲金載榮(53)순천의원원장
▲金鍾祚(53)김내과병원원장
▲金春吉(64)중대병원원장
▲盧東斗(51)서울배제병원장

◇齒科大學

▲高鎮洙(64)고진수치과원장
▲金圭校(63)금성치과원장
▲金明媛(54)김명원치과원장
▲金祥世(66)김상세치과원장
▲金成龍(64)김성룡치과원장
▲金潤永(62)자혜치과원장
▲金仁壽(51)동산치과원장
▲金周煥(47)서울중앙병원과장
▲金平一(72)강남치과원장
▲金學聖(69)중앙치과원장
▲金鴻基(57)김홍기치과원장
▲南勇旭(55)남욱치과원장

◇司法大學院

▲金道彦(64)대전고검검사
▲鄭洸熙(65)변호사
▲趙嘉允(68)부산동부지청차장
▲朱光逸(70)대전고검차장
▲池憲範(64)인천지검검사
▲朴炳一(68)변호사
▲朴惠建(63)변호사
▲徐次洙(63)변호사
▲安鍾赫(63)변호사

◇音樂大學

▲洪植根(53)前(前)안악국
▲黃俊秀(60)서울제악(주)사장
▲金南世(70)수원시향상인지회
▲金昊(64)서울대교수
▲金鳳仁(59)경희대대학장
▲金振元(62)세종대대교수
▲金昌九(52)영남문화재단이사
▲申秀典(63)경원대예술회장
▲李信和(66)김천예술고교장
▲李在淑(63)서울대교수

◇體育大學院

▲李範國(73)명지대학교수
▲黃和子(68)신신여대대학장
▲金學煥(66)중외제약연구소장
▲余鉉泰(67)서강의원원장
▲全金子(64)前(前)대한간호협회장

◇保健大學院

▲金學煥(66)중외제약연구소장
▲余鉉泰(67)서강의원원장
▲全金子(64)前(前)대한간호협회장

◇經營大學院

▲金英大(70)대산산업사장
▲金容範(77)대통령비서실과장
▲金斑泰(68)前(前)인니자원개발
▲李允秀(68)우성미디어회장
▲趙植熙(71)동제실업부장
▲崔仁燾(70)한국정밀기계대표
▲韓京鎬(67)새마을금고감사

◇教育大學院

▲李範國(73)명지대학교수
▲黃和子(68)신신여대대학장

10월이
會員義務履行하는
달
會費未納동문 새해부터
會報못받아

▲權泰雄(64)금영아파트(주)사무
▲金東錫(59)제일은행부장
▲金東漢(56)신성건설사업부장
▲金明俊(59)장기신용은행이사
▲金方淵(66)광산산업부장
▲金相澤(59)우산산업부장
▲金相燾(52)태화회장
▲金宣中(60)진로그룹기조실장
▲金成圭(63)경남도지공업이사
▲金盛斗(62)세반건설부장
▲金聖柱(61)경기신영고대표
▲金新正(59)前(前)신원구원부장
▲金英錫(56)조흥증권부장
▲金完洙(62)국세청부장
▲金龍起(62)대구리스사장
▲金容燾(55)진안화부회장
▲金龍澤(54)금강기획국제이사
▲金昇漢(62)(주)대일기조실장
▲金雄世(57)롯데일사장
▲金雄烈(53)유성기업사장
▲金允基(55)한진해운부장
▲金允澤(49)영진인텔공업부장
▲金正基(65)전원대부동산부장
▲金正淳(54)(주)신영전부
▲金正銀(56)오리과학공업사장
▲金鍾惠(59)제일은행부장

▲朴壽基(58)제일은행(주)사장
▲朴泳求(67)제일은행(주)부장
▲朴榮祐(64)(주)금산은행원장
▲朴仁植(66)동원산업부장
▲朴正龍(56)우부자산부장
▲朴昌燾(60)국회개발리스부장
▲朴泰榮(66)국회의원
▲朴憲斗(64)대동기조(주)사장
▲裴柱元(59)이신해운(주)대표
▲白承祚(67)조흥증권부장
▲徐承遠(70)코오롱건설부장
▲徐榮澤(62)신일부동산
▲徐柱成(67)안산전원대학장
▲徐振錫(64)(주)화성산업사장
▲石學鎰(60)코오롱건설부장
▲成旭基(57)충청은행장
▲成俊慶(48)前(前)미온은행부장
▲成夏鎰(62)(주)삼희기획사장
▲孫建來(59)한국자보사장
▲孫東皓(57)조흥은행부장
▲宋吉憲(59)신한생명보험부장
▲宋達鎬(60)국민대부동산
▲宋仁相(55)중앙나이트호텔장
▲宋宙植(49)국립미술관장
▲申錫休(62)이원합동회계대표
▲慎伯根(64)서울대교수

▲李元基(55)이원기획대표
▲李殷那(61)대전건설(주)전부
▲李鼎基(58)세창출판(주)사장
▲李鍾國(58)동원산업(주)사장
▲李鍾德(57)前(前)리원전인
▲李容燾(60)(주)신정전부
▲李俊容(66)동아제분(주)사장
▲李重鎬(61)(주)대화사장
▲林秉泰(57)대원출판(주)사장
▲林采柱(59)국세청조사차장
▲張基八(62)한일은행부장
▲張東熙(59)순해보합은행부장
▲張滿花(61)서울시립대교수
▲全永孝(61)KBS문화사업단
▲鄭斗榮(62)아시아공정장
▲鄭丙壽(60)신원대교수
▲鄭詔永(51)생명보험협회부장
▲趙淳(49)한국은행총재
▲曹源(62)충북지방세청장
▲趙德讓(57)신한회계법인대표
▲趙東一(64)조흥은행전부장
▲趙元基(40)우이계사무소
▲趙澤九(57)신원나이트전부
▲池治本(62)충청은행장
▲秦成周(64)(주)한진전부
▲千京玉(61)동원화학부회장

▲李昌琳(58)한국출판부이사
▲林東主(78)마우역사장
▲張東善(62)동성출판사장
▲全東龍(55)한국안면협회장
▲趙英雄(67)(주)한화이자실장
▲趙忠鎬(53)서울대의대학장
▲高義鎰(53)삼일제약(주)회장
▲孔南植(51)삼일약국
▲權景坤(60)대한안사회장
▲朴鍾勳(67)동국대(주)부장
▲徐延規(48)前(前)제악(주)회장
▲宋錫善(57)일양약품(주)사장
▲安養燾(57)부광약품(주)부장
▲梁澤鎬(53)경남제약(주)사장
▲俞溶根(59)한국그라스(주)전부
▲尹溶求(53)일동제약(주)회장
▲李相燾(54)서울대교수
▲李禮植(49)연세제약(주)사장
▲丁明鎰(67)태평양제약부회장
▲崔允煥(60)진양제약(주)사장
▲崔賢植(60)중외제약부부장
▲咸聖用(57)미용산사(주)회장
▲許溶(47)삼일제약(주)사장

▲文聖武(66)문이비인후과의원
▲文太俊(50)의료정책연구소
▲朴貴媛(72)서울대병원과장
▲朴炳善(49)박의과원장
▲朴聖德(64)새한병원원장
▲朴煥實(60)박산부인과의원장
▲朴貞淑(54)신남중앙병원과장
▲白萬基(47)신애병원과장
▲白相泰(59)서울대교수
▲邊向鉉(57)동수원병원이사장
▲成基浩(66)한일병원과의과장
▲成相植(73)서울대교수
▲孫基燾(57)충남대안연구소장
▲宋益藏(64)마산고려병원부장
▲宋熙昇(59)송내과의원장
▲申順徹(68)제일병원산부인과
▲沈輔星(49)前(前)서울대교수
▲沈英輔(61)신영보훈자선의원
▲安榮國(60)안산부인과의원장
▲嚴英燾(48)임소아과의원장
▲吳慶根(50)오산부인과의원장
▲柳聖熙(60)동서울병원원장
▲劉永哲(66)남산의원원장
▲柳仁相(63)전주안과원장
▲尹錫求(57)원자력병원원장
▲李敬智(53)신일산부인과원장
▲李啓平(65)이과의원원장
▲李德洙(61)이내수의과의원
▲李復熙(58)충북대의대학장
▲李煥均(62)한양대병원원장
▲李鍾萬(58)이종만소아과원장
▲李柱鎬(58)전구신심병원원장
▲林南宰(63)인소아과의원장
▲張基洪(66)안양대정형외과
▲張敦植(62)서부병원원장
▲張益說(49)신풍제지사장
▲趙明河(58)조명하의과의원장
▲朱正和(50)고대해병원과장
▲蔡洙應(63)경희대교수
▲崔圭完(61)서울대교수
▲崔成培(61)서울대교수
▲崔在得(63)최재득내과의원
▲河權益(63)국립경향병원부장
▲韓萬熙(63)대명의원장
▲韓元鎬(58)한원호내과의원장
▲咸蒼谷(67)한양의대교수

▲閔丙德(70)정산치과원장
▲邊碩斗(57)세브란스치과원장
▲孫光雄(66)순광치과원장
▲申榮均(55)명보치과원장
▲梁精康(62)양정치과원장
▲尹斗重(75)윤두중치과원장
▲李壽久(72)이치과원장
▲李秀植(67)이수중치과원장
▲李昌熙(63)이창희치과원장
▲李浩正(61)국회의원
▲張相憲(65)장상헌치과원장
▲鄭寬喜(67)정광희치과원장
▲鄭昭永(56)정소영치과원장
▲曹仕鎰(61)조시현치과원장
▲朱寬哲(65)의당치과원장
▲朱洛林(64)한일치과원장
▲池憲澤(47)치현택치과원장
▲河聖秀(47)하성수치과원장
▲韓基高(78)한기설치과원장
▲黃圭直(60)황규선치과원장
▲洪禮杓(71)홍치과원장

▲姜明圭(59)서울대사대교수
▲權成哲(74)고려종합검제
▲金應振(49)을지병원원장
▲安武赫(62)한국발전연구원
▲尹東浩(62)서울대의대교수
▲李學重(63)국립의료원과장
▲丁海旺(77)대신경제연구소
▲朱良子(66)국회의원

▲金英大(70)대산산업사장
▲金容範(77)대통령비서실과장
▲金斑泰(68)前(前)인니자원개발
▲李允秀(68)우성미디어회장
▲趙植熙(71)동제실업부장
▲崔仁燾(70)한국정밀기계대표
▲韓京鎬(67)새마을금고감사

솔선하는 「年會費 完納」
同窓會 활성화의 지름길

※지면관계상 法大
이후는 次號에 게재
되오니 양지바랍니다.

公演

■필하모니아현악4중주단 연주회

-10월16일 예술의전당
지난 88년 鄭勝榮(71년 音大卒·제1Vn)등문을 중심으로 창단된 이들의 제7회 연주회. 高周敏(82년卒·제2Vn) 李承烈(72년卒·비올라)등 동문들이 하이든 브리튼의 현악4중주, 보케리니 「플룻4중주 D장조」를 들려준다.



■서울 챔버 앙상블 정기 연주회

-10월26일 예술의전당
金準次(63년 音大·피아노)등문이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이들의 세번째 연주회. 鄭孝鍊(88년卒·비올라) 姜麗珍(88년卒·하프)등문 등이 스포

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소나타C단조」를 비롯, 도호나니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를 연주한다.

■서울모테트합창단 연주회

-10월9일 예술의전당
30여명 단원중 절반 이상이 서울 大人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11회 정기 연주회. 상임지휘자 朴治龍(86년 音大卒)등문의 리드로 A.스칼라티 「Exultate Deo」를 비롯, 파셀 비발디 모짜르트 등을 연주한다. 피아노 협연은 梁起煥(88년卒)등문.

■琴惠孝피아노독주회

-10월8일 예술의전당
88년 모교 音大 졸업후 독일 칼스 루크림읍대 KA코스를 최우수로 졸



◇김혜孝(피아노)

업한 琴惠孝의 이번 국내무대에서는 쇼팽의 「3개의 폴로네이즈」를 비롯, 바흐 베토벤 쇤베르크의 피아노곡들이 연주된다.

■현대미국소설론

-金鍾云 著(57년 文理大卒·모교總長)

현대미국문학의 주된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연구논문. 유대계 미국소설의 開化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는 두 세계를 역사적 개관과 함께 작가의 작품을 통해 접근하여 이 두 세계가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392쪽·9천원·서울대학교출판부판)

■소설과 문명의 언어

-權孝琨 著(71년 文理大卒·모교교수)

관심의 대상이 돼왔던 작가들의 작품세계, 독특한 작품들에 대한 조명, 월북작가들의 문학세계, 한국현대문학의 경향과 과제를 다룬 평론들을 모은 문학평론집. (434쪽·8천원·현대소설판)

■지역개발주의 연구

-南永信 著(71년 法大卒·한국문장교육학회 어문연구소장)

우리사회의 심각한 지역분할 현실의 원인과 치유방안을 역사적·실증적으로 고찰 제시한 논저. (336쪽·6천원·학민사판)

■서울대 數學

-洪範準 編(89년 自然大卒)

73년도에서 80년도까지 치러진 모교 본고사 수학문제의 해설과 모범해답을 수록. (149쪽·4천8백원·학민사판)

新刊

■法學教育과 法書實務

-한국법학교수회 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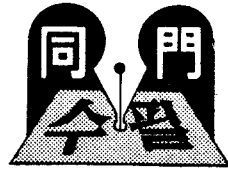
법학교육의 개선방향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온 한국법학교수회에서 법조교육의 문제, 학계와 실무계간의 유대강화 등에 관해 벌여온 토론회의 논문들을 모은책. 金哲洙교수(56년 法大卒·모교교수·本報편집위원)를 비롯한 회원 16인이 「법학교육」 「사법시험제도」 「법학과 법조계의 관계」를 논급하고, 권말에 각종 건의문을 수록했다. (233쪽·6천원·교육과 학사판)



■동물바이러스학

-金宇鎭 編著(56년 獸醫大卒·강원대교수·本會이사)

바이러스학 분야중 특히 동물(사람포함)바이러스에 관한 기초지식을 총론적으로 엮은 교재. (396쪽·8천원·강원대학교출판부판)



연한 지향志向이라 할 수 있다.

오들날 너도 나도 불만 생기면 등산을 한다. 그만큼 등산은 대중화된 셈이다. 휴일엔 도시주변의 산뿐 아니라 약간 이름이 알려진 멀고 가까운 산들은 온통 등산객들로 붐비고 산을 찢아 찢어 다다 뽕기 뽕기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옛사람들에게는 등산이 하나의 취미가 될수 없었다. 생활이 산천초목의 자연속에서 이루어졌기에 공이 산을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는 우리로부터 자연을 빼앗아갔다.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이 빼앗긴 자연을 되찾으려는 것은 「모태회귀」(母胎回歸)의 본능이기도 하다.

登山에서 얻는 즐거움



金大煥
53년 文理大卒
梨花女大교수

가벼운 山行 자체가 「생활의 멋」

산은 가장 人間主義的인 마음의 공간

보통사람이 된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산야를 금수강산(錦繡江山)이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

스트 정상에 오를 땀이 쏘는, 1969년 아폴로11호를 타고 달나라에 착륙한 암스트롱 중령과 함께 금세기 가장 위대한 모험을 해냈다 할 수 있다. 다만 전자가 인간의 강인한 의지의 소산이었다고 하면 후자는 과학의 승리를 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회화한 산소부서운 혹은 감동은 사대에서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극한적인 불안과 공포와 고독을 이겨내야 할 투철한 의지와 용기와 인내는 실은 초인적인 체력과 기력(氣力)의 뒷받침이 있는 감히 일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뉴질랜드 출신의 힐러리경은 왜 그렇게도 험준하고 위험한 고봉을 찾으면서 산에 오르느냐?고 물었을 때, 단 한 마디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만 답했다. 그

나, 함께 가는 나에 따라 산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더더욱 등산 하는 바로 그 날 자기 자신의 몸의 컨디션과 기분에도 좌우된다. 그렇듯 산은 하나지만 그것은 변화무쌍하고 천태만상의 다.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교통도 편리하고 숙박도 편안하다. 거기에다 등산장비도 많이 개발되었다. 그러기에 산을 프로로 타는 사람뿐 아니라 등산의 아마추어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산도 좋다. 문득 도심이 싫어지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더러워지지 않은 숲 그리고 푸른 숲이 그리워지면 가벼운 마음으로 산엘 오르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마음의 여유이고 생활의 멋이 된다. 왜냐하면 산은 자연 그대로 순수하고 가식없고 정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를 가장 인간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자기생각으로 환원시켜준다.

하늘은 우리에게 비록 넓은 땅 좁은 자연은 주질 않았지만, 그 대신 비단금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강산을 주었다. 그것은 넓은 강물보다, 풍요한 자연보다 우리들에게 준 더 큰 은혜라 할 수 있다.

1953년 5월 29일 영국의 헨리대령이 이끄는 히말라야 원정팀에 참가하여 원주민들과 함께 인류 최초로 세계의 고봉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산악인들. 그들은 산악대기라는 한 곳이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수없이 많다. 폭풍은 산악지대로 불어올라 4계절에 따라 다르고, 그날의 기상예파라를 봐도 혼자서 가는

산과 대패천산 그리고 불가리아의 체르니산에 이르러까지 나의 산행은 넓고 다양했다. 어느새 산은 내 인생의 큰 몫이 되었고 거기에다 스키, 특히 산스키까지 하는 용에 나의 산악운동은 연륜과 함께 나날대로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고, 이제 는 그것이 내 생활속에 체질화·내면화 되기에 이르렀다.

산은 우리에게 체력과 함께 기력을 준다. 기력이 뒷받침되어야 정지도 정제도 학문도 예술도 해낼 수 있다. 바로 기력이 창조력을 우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산은 우리에게 무한한 삶의 원과 의미를 준다. 산은 가장 자연주의적이고 가장 인간주의적인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고 그 터전이 된다.

소식

관한 비교를 주제로 전개될 이번 심포지엄이 특히 그간 개별적인 교수교류 수준에서 이뤄져온 화학교류형성을 탈피,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대국간의 인원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타국대학과의 화학교류를 예도 2000년 미첼 전만이

勉學분위기 진작에 한몫

▲朴枝香(인문대학 서양
사학과(75년 文理大卒))
▲任漢淳(인문대학 독어
독문학과(70년 文理大卒))
▲許南進(인문대학 철학
과(79년 人文大卒))
▲林宗大(인문대학 독어
독문학과(67년 文理大卒))

◇ 파견직원
 ▲人文大교수 李泰鎭 國史學科長
 ▲醫科大교수 金建烈 보건의료소장
 ▲人文대교수 朴南植 이어학연구소장
 ▲醫科大부교수 趙秀憲 기획실부장
 파견고용문화회는 「성환이형 살리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모금과 수익사업으로 「인간문화재」 위한

과장근로(근로장교)인 "성환이 형" 살인기안(기안)을 "부"를 결성하고 모금과 수익사업으로 자금유출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였다.

모금(모금)을 하는 기간 동안 1일 캠페인을 시작하여 학생회관 도서관 등 곳곳에 모금함을 설치했으며, 강의실을 돌면서 직접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신분화와 학생들은 지난날 4월 학생들로부터 온라인구좌를 통해 모금을 받기로 했다.

온라인구좌번호는 0791011374502이다. 또한 후원회조직을 판악전제로 확산시킬 계획이며, 물품판매, 자선공연등의 수익사업을 벌여 추가적인 동원의 살인기안(기안)에 자료가 되는 모금(모금) 예정이다.